

I. 머리말

1391년 6월 세비야에서 시작된 야만적인 유대인 대학살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공포에 사로잡힌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스페인 기독교인들의 숙원 사업이던 유대인들의 집단 개종이 실현되는 듯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독교인들은 이들의 집단 개종을 축복이기보다는 오히려 재앙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제 콘베르소들은 과거의 전통적 신앙을 고수하는 사이비 기독교인들로 비쳤던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바라보는 학계의 기본 입장은 대체로 ‘변화’보다는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즉 감성의 측면에서 집단 개종 이전과 이후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개의 배타적 시각이 존재한다. 하나는 이른바 차별의 지속에 대한 비난을 차별하는 자의 변하지 않는 본성 탓으로 보는 시각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차별받는 자의 본성 탓으로 보는 시각이다. 예컨대 전자의 극단적인 입장을 대표하는 네타냐후(B. Netanyahu)는 개종, 동화, 문화변용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증오를 막는 아무런 장벽도 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그것을 악화시켰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반유대주의는 종교적·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늘 인종적이었던 것이다.¹⁾ 후자의 입장은 희생자인 콘베르소들에게 공격의 화살을 돌린다. 즉 개종자들은 겉으로만 기독교를 믿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속속들이 유대적이었으며 이러한 끊임없는 유대성이 구기독교인들의 거부와 박해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이미 15세기에 개종자들을 공격한 기독교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가톨릭 호교론자들이 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니런버그(D. Nirenberg)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1319년 이후에 있는 수만명의 유대인 집단 개종이 스페인의 종교적 및 사회적 세계를 변화시켰다는 것은 사실이다.²⁾ 대규모 집단 개종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기독교 사회에서는 이들의 실체를 둘러싸고 새로운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었다. 개종을 바라보는 기독교 사회의 분위기는 14세기 말에 최초의 집단 개종이 이루어진 지 불과 수십 년 만에 확연히 변화했다.

이 글은 앞서 언급한 기존 연구들의 쟁점이 되어 온 차별의 원인론을 살피기보다는, 유대인들을 동화시키는 데 온 힘을 쏟은 사회가 이제 역으로 그 동화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종교라는 이른바 문화적 차이를 ‘피’라는 자연적 차이로 전환시키려 하는 사회적 고민 등 집단 개종의 결과 스페인 기독교 사회가 이에 대처하면서 구성한 담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우선 2장에서는 중세 사회에서 개종의 의미와 개종자의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검토한다.

II. 기독교 사회에 비친 콘베르소의 정체성

1) B. Netanyahu, *The Origins of the Inquisition in the Fifteenth Century Spain* (New York, 2001), p. 827.

2) D. Nirenberg, “Enmity and Assimilation: Jews, Christians, and Converts in Medieval Spain,” *Common Knowledge* 9 (2003), p. 140.

신앙 공동체인 교회로 들어가는 의식인 세례는 근본적인 기독교적 실존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³⁾ 교회는 성사인 세례가 한번으로 족한 의식으로 여겼다. 중세의 신학자들은 세례가 노예의 낙인과 마찬가지로 영적 질서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다고 설교했다. 심지어 배교자도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 효과의 영속성은 절대적이다. 성사가 타당하게 집행되었을 경우 그 효과는 당연히 발휘되었다.⁴⁾ 즉 중세의 인식틀에서 개종은 기독교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는 관문이었다.

개종자들은 성직을 비롯한 공직에 오르고 명예도 누렸을 뿐만 아니라,⁵⁾ 과거의 재산권과 상속권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었다.⁶⁾ 따라서 개종시에는 과거 유대인들에게 가해져 왔던 정치적·사회적·경제적인 제반 규제가 일거에 제거되었다.

그러나 교회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중세 시대 내내 개종자들에 대한 질서와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1130년 교황 선출 과정에서 교황청의 다수파가 추기경 페트루스 피에르레오네(Petrus Pierleone)를 교황 아나클레투스(Anacletus) 2세로 선출하자 소수파는 인노첸티우스 2세를 대립 교황으로 옹립했다. 이 과정에서 증조부가 유대인이었던 아나클레투스는 신체가 불구인 데다 “사악한 대금업자인 조상의 나쁜 냄새”를 풍기는 등 육체적으로 “기독교인보다는 유대인이나 아랍인을 더 닮아 피부가 거무스름”하다는 비난에 시달렸다. 교황 선출을 둘러싼 논쟁에서 아나클레투스의 유대인 혈통이 쟁점이 되었다는 것은 일부 기독교인들이 개종자들의 자손이 핵심적인 권력에 접근할 때 이들에 대해 상반된 담론이 형성되었음을 암시한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1090~1153)는 아나클레투스가 교황 자리를 넘보는 것은 모욕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황제 로타르에게 보낸 편지에서 “잘 아시다시피 유대 혈통인 자가 이제 베드로의 권좌를 꿰차고 그리스도를 욱보이고 있습니다”⁷⁾고 탄원하였다. 베르나르 같은 일부 기독교인들은 유대성이란 상속에 의해 전해지며 세례의 효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육체적인 속성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나클레투스의 반대파가 가한 공격은 개종과 세례가 유대적 정체성을 완전히 일소하지는 못했음을 암시한다.⁸⁾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 1290년에 남부 이탈리아의 유대인들은 강제로 개종되었다. 그렇지만 이후 2세기 동안 이들 유대인의 자손들은 여전히 유대인으로 알려졌으며 공문서에서 신개종자(Neofiti) 내지 상인(Mercanti)로 총칭되었다.⁹⁾

3) Peter Brown, *The Body and Socie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49. 가톨릭의 교리에 따르면 성사는 외적인 표시를 통해서 내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실제로 그 변화를 이루게 된다. 세례는 물로 씻는 외적인 표시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톨릭 교리서』(한국천주교 교리서편찬특별위원회, 1993), 130쪽.

4) E. A. Synan, *The Popes and the Jews in the Middle Ages* (New York, 1967), 55.

5) “우리 왕국의 사람들은 누구나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그들을 존경하며 유대인 과거 행적을 들먹여 본인과 자손들을 비방하지 말 것을 명한다. 그리고 개종자들이 재산을 보유하며 마치 그들이 유대인이었을 때처럼 부모와 다른 친척들의 재산을 형제들과 함께 상속받는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관직과 명예를 지닌다.”(『7부법전』 7.24.6). Grayzel, *Church and the Jews*, 21.

6) 이베리아 반도의 경우 1242년 아라곤의 하이메 1세는 세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무어인이 그의 모든 재산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했는데, 이는 교황 인노첸티우스 4세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개종자는 정상적인 상속자로 다루어진다는 알폰소 10세의 법조항의 내용은 이러한 상황과 맥을 같이 한다. Salo Wittmayer Baron, *A Social and Religious History of the Jews*, 18 vols (Philadelphia: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2~83), vol. 9:21.

7) S. W. Baron, *A Social and Religious History of the Jews* (New York, 1957-67), vol 4, p. 11.

8) *ibid.* 바론(Salo W. Baron)은 그의 반대자들이 인종적 이슈를 반대 구실로 내걸었다고 주장한다.

9) Y.H. Yerushalmi, *Assimilation and Racial Anti-Semitism: The Iberian and the German Models* (New

또한 중세 유럽에 만연한 소위 ‘유대인의 악취(foetor judaicus)’라는 관념은 기독교인에게 깊은 의미를 지녔다. 13세기 오스트리아의 시인인 자이프리트 헬블링(S. Helbling)은 “아무리 넓은 땅이라도 유대인 30명만 있으면 온 데 악취와 불신을 풍길 수 있다”고 썼다. “악취와 불신”은 쌍으로 작용하는 유대적 특성이었다.¹⁰⁾ 이들이 악취를 풍기며 우물과 시내를 오염시킨다는 것은 중세 유럽 유대인의 전형적 이미지이다.¹¹⁾ 물론 악취를 비롯한 유대인의 육체적 결점은 이들이 성사인 세례를 받는 즉시 기적적으로 사라진다고 전제되었다.¹²⁾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세례가 유대인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의혹을 품기 시작했다. 적어도 15세기 한 스페인의 기록에 따르면 유대인들 말고도 신기독교인들도 역시 유대인 특유의 냄새가 영원히 제거되지 않고 악취를 풍긴다는 것이다.¹³⁾

한편 중세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매춘부와 마찬가지로 불결한 존재로 취급받았다.¹⁴⁾ 인류학자 더글라스(M. Douglas)는 “전 인류는 서로를 강요하여 선량한 시민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사로잡혀 있다. 간부(姦婦)가 흘깃 쳐다보거나 살짝 만진 이웃이나 아이들은 병에 걸린다고 생각하는 경우처럼, 진염의 위협에 대한 믿음은 어떤 도덕적 가치를 지탱시켜주기도 하고, 어떤 사회적 준칙을 규정해주기도 한다”고 말한다. 더글러스에 의하면 타자를 구분하기 위해 불결로 생기는 위협의 가능성이 이용되기도 하는데, 위험한 소수 집단한테 도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유대인들이 격리되고 치욕의 배지로 낙인 찍혔던 것이다.¹⁵⁾ 이 점에서 불결과 불순은 ‘피’의 특징이 되었으며 개종과 세례로도 쉽게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중세 후기에 구기독교인들의 피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 용어인 ‘순수(limpieza)’는 이러한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¹⁶⁾

문학 작품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찾아볼 수 있다. 13세기 카스티야에서 편찬된 시집인 『성모 마리아 찬가』에서 여러 종족 출신의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이야기는 많지만 기독교인 캐릭터가 아프리카나 중동 출신의 종족적 특질을 보이는 이야기가 한편도 없다. 다양한 종족이 어우러진 중세 스페인의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서 다른 종족 출신 개종자들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특이한 일이다. 개종의 대상이 되어 기독교로 개종한 무어인들과 유대인들이 『찬가』의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등장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가령 『찬가』 46과 107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무어인 남자와 유대인 여성은 구기독교인들의 스토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각 오로지 자신들만을 다룬 이야기에만 등장할 뿐이다.¹⁷⁾ 이에 대해 해턴(Vikki Hatton)과 매케이(Angus MacKay)는 유대인들이

York, 1982), pp. 6~7.

10) Trachtenberg, *The Devil and the Jews*, 47~48.

11) A. MacKay, “The Hispanic-Converso Predicament,” *Transactions of the Royal Historical Society* 35 (1985), 167.

12) 유대인은 세례를 받는 결정적인 순간에 세례의 정화수로 악취가 제거된다. Trachtenberg, *The Devil and the Jews*, 48; Lester K. Little, *Religious Poverty and the Profit Economy in Medieval Europe*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53. 한 민간 전승에 따르면 한 유대인이 막 세례받은 자기 딸에게 다가오자 갑자기 그 딸은 그에게서 나오는 아주 역겨운 악취를 느꼈다. 그녀는 개종하기 전에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Trachtenberg, *The Devil and the Jews*, 48~49 참조.

13) *ibid.*, 48~50. 이것이 유대교로의 회귀의 결과인지 아니면 식습관의 탓인지는 당시로서도 논란거리였다.

14) 아비뇽 시는 유대인이 판매대에 놓인 과일을 만질 경우 매춘부와 마찬가지로 그 것을 더럽혔기 때문에 구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Baron, *A Social and Religious History of the Jews*, vol. 11, 85~86.

15) 메리 더글라스, 『순수와 위험』(현대미학사, 1997), 25쪽.

16) 이는 모리스코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그들의 피가 순수성을 결여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이삭의 고귀한 혈통인 반면 그들은 이스마일의 서자 혈통이기 때문이다. MacKay, “The Hispanic-Converso,” 169~169.

17) 다른 종족이 배제된 또 다른 사례는 『찬가』 42이다. 오늘날 야구와 흡사한 놀이에 등장하는 기독교인들은 모

기독교로 개종할 때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에 주목하였다.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에 대한 과도한 부정적 묘사가 유대적 차이를 드러내도록 고안된 예술적 창안물이듯이 새로운 개종자들의 갑작스런 육체적 유사도 역시 개종자가 진정으로 동화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라고 주장했다.¹⁸⁾ 그러나 『성모 마리아 찬가』 제109편의 삽화에서 장애로 태어난 유대인 소년이 개종 후에도 아무런 신체적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특히 『성모 마리아 찬가』 제85편의 삽화에서 개종을 받아들이는 우호적인 유대인을 다루지만 그 유대인 개종자는 전형적인 유대인 캐리커처로 묘사된다. 따라서 이는 이들 개종 유대인들이 기독교 공동체에 진정으로 동화되는 데 따른 실질적인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사례들은 비록 그 의미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중세의 반유대주의가 단순히 신학적이거나 종교적인 차원인 것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세례를 통해 개종자는 실존적 변화를 거친다는 교회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통해서도 유대적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시각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III. 집단 개종과 사회적 담론

흑사병의 창궐,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만성적 전쟁의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1391년에 대학살로 귀결되었다. 1391년 6월 세비야를 시작으로 8월까지 스페인의 주요 도시들 대부분에서 무자비한 학살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공포에 사로잡힌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 일련의 대규모 학살과 반 유대 입법, 1413~14년에 아라곤에서 열린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공개 토론의 참담한 패배 등의 결과 새로운 개종 물결이 일어났다.

1391년 이후 개종한 사람들의 수를 추산하기란 어렵다. 일부 학자는 당시 약 20만명의 유대인 가운데 절반인 10만 명 정도가 개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최대 규모의 유대 공동체가 있던 스페인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의 개종을 통해 살아 남아서 하나의 독립된 인구 집단을 형성한 셈이다.¹⁹⁾

1391년 직후 한 세대 동안 구기독교도들은 개종자들의 종교적 관행이나 구기독교도와 신기독교도 사이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경계, 즉 기독교인과 유대인 사이의 경계를 강화하는 데 힘썼다. 이는 1393년에 아라곤 왕이 여러 도시에 보낸 편지에서 “자연적 기독교인들”[개종자에 반대되는]이 누가 유대인이며 누가 개종자인지 분간할 수 없다고 토로한 데서도 짐작할 수 있다.²⁰⁾

어쨌든 이제 기독교인이 된 콘베르소들에게는 주류 사회로 진입하는데 아무런 사회적 제약이나 차별도 없었다. 이들은 관직과 성직을 비롯한 왕국의 요직을 차지하기도 했다. 산타 마리아의 파블로(Pablo de Santa Maria)의 가계를 예로 들어보자. 그는 랍비 출신으로

두 한결같이 백인들이다. R. Ocasión, “Ethnic Underclass Representation in the Cantigas: the Black Moro as a Hated Character,” in *Estudios Alfonsinos Y Otros Escritos*. Edited by Nicolás Toscano Liria (New York: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1991), 187.

18) V. Hatton and A. Mackay, “Anti-Semitism in the Cantigas de Santa Maria,” *Bulletin of Hispanic Studies* 61 (1983), p. 195.

19) 김원중, 「근대 초 스페인 종교재판소와 유대인 문제」 『서양문명과 인종주의』 한국서양사학회 엮음 (지식산업사, 2002), 106쪽.

20) Nirenberg, “Enmity and Assimilation,” p. 141.

1391년에 개종했는데 후일 부르코스의 주교가 된 솔로몬 알레비(Solomon Halevi)이다. 그와 함께 세례를 받은 아들 알론소 데 카르타헤나는 그의 뒤를 이어 부르코스의 주교가 됐으며 1434년 바젤 공의회에서 스페인 대표로 활동하기도 했다.²¹⁾ 대학 입학도 가능해졌으며 기독교 매춘부와 성관계도 가질 수 있었고 기독교 여성과의 혼인도 가능했다.

중세 내내 유럽의 기독교 세계는 유대인 문제를 본질적으로 한 개의 차원, 즉 개종의 차원으로 바라보았다. 유대인들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은 탓에 별개의 집단을 형성했으며, 개종하게 될 경우 별개의 실체로서의 그 존재는 사라지게 된다. 스페인은 이제 이러한 범유럽적인 꿈을 눈앞에 둔 셈이다. 그러나 바로 그 무렵 기독교 주류 사회는 갈수록 유대인의 집단 개종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켰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있는 한, 구속력 있는 법적 장치를 통해 그들을 명확한 경계 안에 둘 수 있었다. 이제 말하자면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반유대적 안전 장치는 거대 집단인 콘베르소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법적으로 이들을 제어할 아무런 수단이 없었다.²²⁾

15세기 들어 콘베르소들과 그 자손들을 규정하기 위해 여러 용어와 명칭들이 사용되었다. 개종자(converso), 참회자(confeso), 돼지(marrano), 변절자(tornadizo), 신기독교인(cristiano nuevo), 말(alboraique) 등 다양한 명칭은 상황의 모호성과 적에 대한 정의의 어려움을 방증한다.²³⁾

이들의 실체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 사회 통제 시스템의 전면적 기능 마비와 맞물리면서 이제 내부자로서의 콘베르소들은 가공할 요소로 다가왔다.

더욱 더 문제가 된 것은 이베리아 기독교인의 상상 속에서 최초로 유대인 없는 세상의 가능성을 제시한 1391년의 집단 개종으로 타자로서의 유대인들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기독교적 정체성이 위기를 맞았다는 점이다.

14세기 초에 콘베르소들의 유대성은 구기독교인들이 이들을 공격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부각시키지는 않은 듯하다. 니런버그는 이른바 연속설을 공박하면서 15세기 중반의 반콘베르소 운동은 그 이전의 차별과 정체성의 직접적이고 불가피한 결과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²⁴⁾ 그러나 전대미문의 대규모 개종과 기독교적 정체성의 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사회적 혼란 속에서 구기독교인들은 집단 기억 속에 잠재해 있던, 개종을 통해서도 지워지지 않는 콘베르소들의 유대적 속성을 새롭게 인식한 것은 아닐까 싶다.

IV. 피의 순수성 법령의 성립

이러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구기독교인들은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다. 콘베르소들에 대한 반감은 일련의 학살로 이어졌다. 1449년과 1467년에 톨레도에서, 또 1473년에 코르도바 등 안달루시아의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콘베르소 학살이 발생했다.²⁵⁾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되었다.

14세기 초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콘베르소들과의 차별 수단으로 변하지 않는 새로운 차이, 즉 피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스페인 특유의 현상이다. 콘베르소들은 상상된 피의 차이 때문에 개종과 동화가 불가능하다고 간주되었다.²⁶⁾ 구기독교인들은 세례조차도 유대인들

21) Yerushalmi, *Assimilation and Racial Anti-Semitism*, pp. 8-9.

22) *Ibid.*, p. 10.

23) *ibid.*, pp. 11-12.

24) Nirenberg, "Enmity and Assimilation," p. 155.

25) Y. Baer, *A History of the Jews in Christian Spain* (Philadelphia, 1966), vol 2, p. 279.

의 타자성을 지울 수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트라흐텐베르크(Trachtenberg)에 따르면 15세기 스페인의 한 문서에는 유대인들과 콘베르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유한 냄새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⁷⁾ 이러한 사례는 상속을 통해 전달되며 개종과 세례를 통해서도 없어지지 않는 생물학적 질병으로서의 유대적 성질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피의 순수성’ 논의가 출현할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제 필요한 것은 콘베르소들의 재갈을 몰릴 새로운 법적 정의였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피의 순수성’(limpieza de sangre) 논리가 창안되었다. 피의 순수성 법령(estatutos de limpieza de sangre)으로 알려지게 된 이 규정들은 콘베르소들이 공직, 특권 등 과거 기독교인으로서 누리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시도였다. 따라서 이 새로운 법령들은 기독교 사회가 그토록 심혈을 기울인 이교도 개종 사업의 존재 의미를 전면 부정하는 이율배반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더는 종교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마당에 콘베르소와 그 자손들에 대한 차별적 법적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란 유전적 인 것이었다. 종교가 아닌 피가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타자”에서 “자아”로의 이행은 성적인 결합으로 완결된다고 믿었다.²⁸⁾ 이 때문에 영적인 동일화와 통합의 전 과정은 성행위의 측면에서 가장 강력하게 표현되었던 것인데, 구기독교인들의 친족 집단 속으로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았던 신기독교인은 결국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완전히 통합되지 못했던 것이다.

개종자들은 주류 기독교 공동체와 구별되는 콘베르소라는 새로운 형태의 ‘유대인 집단’을 형성했다. 이는 개종과 세례가 실로 유대적 정체성을 기독교적 정체성으로 변화시키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속한 기독교 사회에서 이질적인 종족 집단이 되었다.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개종자였는가, 아니면 사이비 기독교인이었는가는 핵심 사항이 아니었다. 피의 순수성 법령은 이를 구별하지 않고 전 콘베르소 집단을 겨냥했다. 유대인 혈통의 개종자들은 누구나 개인의 기독교 신앙심의 여부와 관계 없이 자동적이고 영구적으로 그 법령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 무렵 세례는 기독교 공동체로의 진입을 위한 필요충분한 통과 의례가 되지 못한다고 여겨졌다. 그 근거로 이야기되는 것 중의 하나가 신약성서의 한 구절(마태오 27:25)이다. “군중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습니다.’하고 소리쳤다.”²⁹⁾ 여기에는 예수의 죽음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의 유죄가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자손”의 종교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시 말해 기독교로 개종하는 자들의 죄를 면해주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³⁰⁾ 피의 순수성은 신앙의 순수성 보다 우위를 차지한 셈이다.

15세기 초 세비야의 대주교가 설립한 살라망카의 산 바르톨로메 학교(Colegio)가 스페인에 피의 순수성 규정을 도입한 최초의 사례이다. 여기에는 유대인 혈통을 가진 자는 입학할 수 없다는 규정이 들어 있다. 특히 1449년에 톨레도에서 제정된 입법의 결과로 콘베르소들은 공직을 보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았다.³¹⁾ 이 법령들은 사

26) S. H. Brody, *The Construction of the Literary Jew in Texts from Thirteenth-Century Castil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Kentucky, 2002), p. 118.

27) J. Trachtenberg, *The Devil and the Jews* (Philadelphia, 1943), pp. 48~50.

28) Nirenberg, "Conversion, Sex, and Segregation," *American Historical Review* 107 (2002), p. 1073.

29) 『공동번역 성서』에 따름.

30) Brody, *The Construction of the Literary Jew*, p. 118.

31) D. E. Carpenter, "Social Perception and Literary Portrayal: Jews and Muslims in Medieval Spanish Literature", in *Convivencia: Jews, Muslims, and Christians in Medieval Spain*, Edited by V. B. Mann, T. F. Glick, and J. D. Dodds (New York, 1992), p. 71

실상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해외 식민지에서 관직 보유의 요건이 되었으며, 포르투갈에서는 1773년에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1860년에야 폐지되었다.³²⁾

이 법령들은 기독교 세계를 이상적이고 완전한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오점에서 지키기 위한 박해운동의 일환이었다는 자크 르 고프의 지적은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³³⁾ 1492년 유대인의 추방, 1609년 기독교로 개종한 무어인인 모리스코들의 추방, 1767년 예수회 수사들의 추방 등 스페인은 그야말로 추방의 전문가였다.

V. 맺음말

32) E. Kedourie, *Spain and the Jews* (London, 1992), p. 13.

33) 자크 르 고프, 장-모리스 드 몽트르미, 『중세를 찾아서』 (해나무, 2005), 234쪽.